

點 檢

海外資源開發, 지금이 好機다

朴 秀 勳

〈動力資源部資源開發局海外資源課長〉

海外資源開發 推進背景

우리나라는 부존 鑛種의 數가 無煙炭 外 39 종에 달해 제법 多樣한 편이나 이중 石灰石, 無煙炭, 重石을 제외하면 그 부존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품위도 빤약하여 별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그러나 일부 주요 鑛物은 전혀 부존도 되지 않은데다 그간 높은 경제성장 지향정책에 따른 所要 에너지 및 공업원료 광물인 有煙炭, 鐵, 銅, 亞鉛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表-1>) 있어 부족분을 海外輸入에 의존(<表-2>)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주요 자원은 선진국인 美國, 카나다, 濟洲를 제외한 대부분이 1·2 차대전 이전 식민지 또는 屬

領地였던 일부 발전도상국에 편재돼 있으며 그간 자원 Nationalism에 의하여 그 지위를 강화한 이들 자원보유국들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에서 본 바와 같이 자원을 무기화 하기에 이르는 등 자원시장이 극히 불안·불투명해 政府는 필요한 주요자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78년 海外資源開發促進法을 제정, 해외자원개발을 서두르게 되었다.

主要資源의 海外依存度

<表-2>		(85年基準)	
區 分 鑛 種	海外依存度	資 源 保 有 國	
有 煙 炭	100%	美國, 中共, 南阿共, 英國, 濟洲	
銅	99.6%	칠레, 美國, 잠비아, 카나다, 자이레	
鐵	94.8%	소련, 濟洲, 美國, 카나다, 브라질	
亞 鉛	63.9%	카나다, 濟洲, 美國, 南阿共, 印度	
우 라늄	100%	濟洲, 카나다, 南阿共, 브라질, 美國	
石 油	100%	쿠웨이트, 소련, 이란, 이라크	

주요 鑛物의 需要展望

<表-1>		(單位: 천톤)			
年 度 鑛 種	76	78	85	91	
有 煙 炭	1,586	2,169	14,697	20,282	
銅	76	58	357	459	
鐵	2,896	4,316	13,106	21,000	
亞 鉛	67	156	255	397	
石 油(千Bbl)	119,710	164,254	193,747	235,025	

註 : 銅, 鐵, 亞鉛은 製鍊能力을 감안 推定, 所要量을 算出한 것임.

註 : 海外依存度는 總需要에 대한 輸入比重임.

海外資源開發事業支援

〈表 - 3 〉

區 分	國庫補助	海外資源開發基金	海外投資資金	石油開發基金
資金運營機關	大韓礦業振興公社	大韓礦業振興公社	韓國輸出入銀行	石油開發公社
對 象	礦山調查支援 直接費支援	探查·施設·運營 資金	海外投資所要 金額	直接事業費
條 件 限 度	全額補助	所要資金의 80 % 以內融資	所要資金의 70 % 以內融資	70 ~ 80 % 以內 融資
利 子 率	-	8 % / 年	9 % / 年	8 % / 年
償還期間	-	10 年 以內	10 年 以內	18 年 以內
支 援 實 績 (85 年까지)	4,389 백 만원	6,873 백 만원	118,717 千US\$	36,172 千US\$

開發 推進 現況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은 일반 해외투자와는 달리 규모가 龐大하며 위험성이 큰데다가 5~10년이라는 장기의 投資懷妊 기간 등 일반적 특성이외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경험이 일천하여 해외광업에 관한 情報蓄積, 探查 및 開發技術이 거의 없고 유망한 對象광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政府는 이에 대응하여 大韓礦業振興公社를 통한 정보지원 및 鐵山조사 기술지원을 비롯하여 해외자원 탐사단계에서 탐사비의 100 %를 國庫보조지원하고 개발 단계에서 시설·운영비의 80 %까지 융자지원하며 稅制면에 있어서도 해외투자액의 20 % 또는 矿業輸入額의 4 %를 損金으로 算入해 주고 있다. 이밖에 海外礦業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被投資國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손실액의 9 %에 해당하는 非常保險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表 - 3〉)을 펼쳐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印尼, 濟洲, 콜롬비아, 폐루, 필리핀 등 자원보유국과 정부차원의 자원협력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자원협력의 증진,合作개발의 가능성 타진 및 既 진출 기업의 애로타개,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훈련과 원활한 정보교환을 도모하고 있다(〈表 - 4〉).

資源協力委員會 設置 現況

〈表 - 4 〉

設 置 國	首席代表	제 1 차 會議	備 考
인도네시아	長 官	79. 9	每年開催
濱 洲	次 官	80. 2	"
콜롬비아	"	80. 11	隔年開催
폐 루	"	84. 11	"
필리핀	"	83. 7	"

그 결과 85년 말 현재 濱洲·美國·카나다에서 5件의 有煙炭 개발사업이, 濱洲·印尼에서 2件의 有煙炭사업이, 카나다에서 2件의 우라늄探查사업이, 印尼·북예멘·수단·美國 등 4개국에서 石油 개발사업이 진행(〈表 - 5〉) 중에 있으며 이미 82~85년 중 濱洲, 美國, 카나다에 진출하고 있는 5件의 有煙炭 開發事業體로부터 6,164 천톤의 製鐵用 및 燃料用 有煙炭이 輸入되었다. 이 輸入量은 같은 기간 동안의 전체 輸入量의 13 %에 해당한다(〈表 - 6〉). 그러나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은 주로 에너지 矿物인 有煙炭, 우라늄에 한정되어 있고 有煙炭 가격은 82년을 고비로 점차 下落하는 추세에 있으며 더 우기 85년 말 급격한 石油가격 하락으로 말미암아 有煙炭 가격 또한 더욱 떨어져 있는 반면 進

海外資源開發參與現況

〈表-5〉

礦種	事業名	事業區分	進出國	進出業體	參與業體
有煙炭	Tanoma	開發事業	美國	浦項製鐵	100 %
"	Mt. Thorley	"	豪洲	"	20 %
"	Greenhills	"	加拿大	"	20 %
"	Drayton	"	豪洲	現代, 大成	5 %
"	Usibelli	"	美國	선일상선	용자매광
"	Pasir	探查事業	인도네시아	한인나자원	100 %
"	Ensham	"	豪洲	력키금성	5 %
우라늄	Dawn Lake	"	加拿大	韓電	4.5 %
"	Bake Lake	"	"	대우	10 %
석유	마두라	유전개발	인도네시아	한국코데코	50 %
"	아당	"	"	력키금성, 유공	18.75 %
"	나우카	"	"	경인, 대우, 유개공	15 %
"	마리브	"	북예멘	유공, 삼환, 현대	24.5 %
"	나일	"	수단	유공	12.325 %
"	미육상	"	미국	대신석유	75 %

年度別 開發輸入實績

年 度 區 分	(單位: 천톤)			
	82	83	84	85
全體輸入	9,039	10,151	12,194	17,131
開發輸入	270	1,274	1,720	2,900
開發輸入比重	3.0 %	12.6 %	14.1 %	16.9 %

出礦山은 대부분 투자비가 집중되는 開發初期 단계에 있어 진출기업들이 收益性 低下에 따라 심한 運營難을 겪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정상 가동이 예상되는 시기가 1~2년 뒤로 닥아와 있어 收益性은 점차 호전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推進 計劃

정부는 현재 石油가격의 하락, 기타 金屬礦物

의 弱勢 지속 등의 국제자원 정세가 오히려 해외자원개발에는 好機會라고 판단 우선 石油, 石炭, 우라늄, 鐵, 銅, 亞鉛을 주요 개발 광종으로 설정하고 민간에 의한 자원개발을 더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良質의 鑛業情報 수집 強化策으로 86년 5월 「해외광물자원개발 정보체제강화방안」을 수립, 大韓鑛業振興公社 중심의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기능을 質的・量的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기업단위의 정보수집을 원활히 하고자 旅費 등의 일부를 보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現行의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 해외개발 소요자금 융자이율 및 대출기간의 緩和, 國庫 보조지원 확대와 海外投資保險에 있어 非常보험 이외에 신용보험의 도입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끝으로 현재 美國, 카나다, 豪洲에 편중되어 있는 非石油 자원개발을 東南亞, 南美 등지까지 확대, 투자지역을 다변화하여 有煙炭, 우라늄, 銅, 鐵礦石 등의 주요 광물자원의 자급도를 91년까지 각각 30 %, 30 %, 20 %, 10 %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 ♣